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서사전략과 환상적 사실성

– tvN <삼시세끼 정선편> 시즌1을 중심으로

김환희* · 김훈순**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 배경
- I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장르적 혼종성과 텍스트의 사실성 추구라는 두 가지 상황적 맥락에서, 보다 정교한 리얼리티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실성’이란, 실재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텍스트 내외부의 여러 전략을 통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는 점에서 ‘환상적 사실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기제를 통해 구체화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tvN의 <삼시세끼 정선편>의 서사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삼시세끼>는 텍스트의 사실성과 제작진의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반에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다. 계절의 순환이라는 원초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현장감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장소의 일상성을 부각하는 출연진들의 행위 및 생활-연출공간의 경계 허물기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촬영지를 ‘현실적인 전원’으로 이미지화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과정 plasticflower27@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hoonsoon@ewha.ac.kr, 교신저자

한다. 더불어 실제 인물과 연출된 허구인물 사이를 오가는 등장인물들은 자연인으로 포장되어, 과정의 사실성이 강조된 일상적 행위들을 이어가는 등 장면의 리얼리티를 강화하는 바, 결과적으로 ‘강원도 정선’은 실현 가능한 이상향으로 치환된다. 그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생산한 환상적 사실성에는 단순히 서사적 즐거움 이상으로 낭만적 현실로 은폐된 문제들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질문을 지속할 때 비로소 ‘리얼리티’ 끝에 실재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열쇠어 :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서사, 자연주의, 장르적 혼종성, 환상적 사실성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이미 미디어에 투사된 일상의 이미지들이 객관적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학술적 연구들은 미디어가 어떠한 서사성과 재현방식을 통해 유사현실을 제조해내는가를 밝혀왔다. 여기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기존의 가상연애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성형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등에 비해, 최근 새롭게 등장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들은 장르적 범주나 전형적인 틀에서 이탈하거나 이들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활성화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수의 증가와 연결되면서 특정 장르로 명명될 수 없는, 장르적 혼종성과 사실성 기제 및 전략을 탑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의 등장 원인은 크게 생산자의 경제 논리와 시청자의 요구 및 기존 장르에 대한 친숙함이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산업적 논리로써, 이는 오늘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포화 및 실질적 장르의 한계와 맞닿아있다. 즉, 한정된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간 경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들은 시청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

해 창의적인 소재를 활용¹⁾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인기 있던 장르들의 재조합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인 시청자들의 요구 및 장르적 익숙함 또한 경제적 논리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문법에 친숙한 시청자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선 ‘사실성’을 만들어내하고자 하는 리얼리티 예능의 재현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성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촬영 기법 및 서사장치를 시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연출된 공간-촬영장을 자연 그대로의 실재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실제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처럼 오락과 더불어 제시되는 예능 프로그램의 사실성은, 궁극적으로 제작진이 전달하고자하는 주제/의도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혼종적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등장 및 이들 텍스트의 사실성 창출이라는 두 가지 상황적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농촌을 배경으로 제작된 tvN의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가 등장인물의 행위와 공간의 ‘사실성’ 확보를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서사전략을 밝히고, 이러한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제가 어떠한 사회 문화적 함의를 지녔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사분석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요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강화하는 시공간의 구성 및 표현 방식인 담화에 초점을 맞춰 일차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사의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환상적 사실성’을 생산하고, 이것이 등장인물과 시공간이 형상화하는 ‘강원도 정선’이라는 농촌의 상징성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1) 박지훈, 류경화,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 개도국의 가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제 5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9, 142~184쪽.

고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자연주의적 삶과 아날로그의 가치, 전원생활의 동경 등이 서사적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환상적 사실성’이란, 서사전략을 통해 구축된, 시청자들이 믿게 되는 허구적 기대이자 구성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실성 전략은 ‘민낯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구성된, 즉, ‘바로 그 장면’을 의심 없는 실재로 받아들이도록 의도하는 장치인 바, 텍스트가 제공하는 결과물은 결국 현실을 가장한 ‘환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사실적 기제를 활용한 서사전략의 목표이자 결과라는 의미에서 ‘환상적 사실성’(illusion of re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혼종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 더욱 치밀해지는 현실과 환상의 다층적인 접점을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연구 배경

1.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혼종성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환상적 사실성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선 먼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장르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등장배경 및 변화과정을 간략히 검토하고, 오늘날 한국적 맥락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혼종성’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장르적 차원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들을 구분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포맷이나 구성, 등장인물, 진행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들 모두 ‘예능 프로그램’으로 통칭된다. 그렇기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혹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²⁾은 현실성을 강조하는 리얼리티와 예능의 요소가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학자마다 접근 지점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내외부적 기술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현실³⁾을 지향하며, 이때 극화된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오락적 요소를 가미⁴⁾한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 안에 구성된 현실 및 흥미위주의 소재로 인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중과 유명인,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타블로이드 저널리즘과 사실 전달에 목표를 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리고 상업성의 극대화된 형태인 대중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의 결과⁵⁾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실상 태생적으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포괄하는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탄생한 혼종적 장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기를 끌기 시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혼종적 성격과 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⁶⁾ 이들 또한 공통적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혼종성은 현

2) 국내에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명칭을 혼용하거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리얼리티 장르로 규정되는 일부의 프로그램들은 예능의 요소를 포함하고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에 따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들을 활용한다.

3) Holmes, S. & Jermyn, D., *Understanding reality television* (Eds.), New York, NY: Routledge, 2004.

4) Kilborn, R., “How real can you get?: Recent developments in ‘reality’ televis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9:4, 1994, pp.421~440.

5) Hill, A., *Reality TV: Audiences and popular factual television*, New York, NY: Routledge, 2005.; Hill, A., *Restyling factual TV: Audiences and news, documentary, and reality genres*, New York, NY: Routledge, 2007.

실의 진실성과 프레임의 허구성의 충돌 사이에서 발생하며, 직접 일상에 개입하거나 인위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자연스러움으로 위장하는 등 장르를 구성하는 두 축의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장르적 혼종성 아래에서 재구성된 현실은 “재연 대상의 진실성 대신, 재연 ‘과정’의 진실성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구축하며, 이런 점에서 현실의 재연성이 아니라 재연의 현실성을 추구”⁷⁾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연을 진실로 믿게끔 만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만의 독특한 ‘환상적 사실성’이 탄생한다.

한편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유행과 확장의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야하는 제작자의 입장과 새로움을 요구하는 대중 간 상호작용, 6mm카메라의 활용과 비선형 편집, 그리고 서구 프로그램 포맷 도입이라는 기술적·산업적 제작환경의 변화⁸⁾ 등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맥락에서 혼합 장르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오늘날 시대적 담론인 신자유주의와 연동됨으로써 더욱 진화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혼종성을 구현하는 대표적 예인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오디션 프로그램은 자기개발과 개인의 책임,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고, 과업의 효율성을 전제로 개인에 대한 감시와 성과를 요구⁹⁾하는 오늘날의

6)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reality)의 재구성 -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제 23권 제 2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1, 7~36쪽; 홍석경,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 - 현실과 허구의 혼합을 통한 텔레비전 장르형성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제 16권 제 1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04, 257~280쪽 등,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7) 김예란·박주연, 「TV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제작자 심층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제 20-3호, 한국방송학회, 2006, 13쪽.

8) 차찬영·박주연, 「TV 오락 프로그램의 포맷 구성의 변화 - 2000년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제 12권 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2, 526~564쪽.

9) 류용재·박진우,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에 침투한 신자유주의 경쟁 담론 - 프로그램의 채택과 제작과정에 대한 생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제 24권 제 1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2, 139~165쪽; 이희은,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그 결과, ‘감시의 타당성’을 확보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의 재현이자 실천 도구¹⁰⁾로서 일정부분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혼종성은 단지 오락성 강화를 위한 진화가 아닌, 타인의 감시와 내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완성 형태의 안정적인 장르이기 보다 계속해서 하위 장르, 혹은 인접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자발적으로 또 다른 장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혼종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대중의 요구에서부터 기술의 발달 및 포맷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더 나아가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고 역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자기규제를 통한 발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맥락에서도 혼종적 장르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등장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장르적 혼종성의 중심에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사실적 기제와 서사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환상적 사실성 역시 이러한 장르적 혼합 속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2.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구축하는 환상적 사실성

앞선 접근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환상적 사실성을 창출하는 근간인 장르적 특성-현실과 허구의 중첩에서 비롯된 혼종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면,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가 어떠한 전략을 통해 환상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감시 사회의 정경, 『한국방송학보』제 28-2호, 한국방송학회, 2014, 211~248쪽.

10) 김수정,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서구조와 문화정치학」, 『방송문화연구』제 23권 제 2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1, 37~72쪽.; Couldry, N. & Littler, J., “Work, power and performance: Analysing the ‘reality’ game of the Apprentice”, *Cultural Sociology* 5:2, 2011, pp.263~279.; McMurria, J., “Desperate citizens and good samaritans: Neoliberalism and makeover reality TV”, *Television & New Media* 9:4, 2008, pp.305~332.

적 사실성을 제시하며 이때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미디어라는, 특정 프레임에 선택되어 전달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 속의 일부가 취사선택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시청자는 카메라를 통해 접한 ‘부분의 현실’을 단지 프레임 내부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특히 현실과 허구의 중첩된 경계의 최전선에 있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의 요구와 제작 환경의 변화,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은 더 현실처럼, 허구 또한 현실처럼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환상적 사실성’을 창출하기 위해 텍스트 내외부의 인위적인 기제와 전략들이 개입하게 된다.

이는 결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현실과 허구를 분간하기 어려운, 이제는 굳이 중첩된 경계를 가늠하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리얼리티 재현의 문제는 “관음증이나 노출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¹¹⁾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매개로 텍스트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보여주고 소비하는 것 이상의 관계 및 논의의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때의 환상적 사실성이 현실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 연장선상에서 재창조된 현실이라는 점이다. 즉,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프레임 안의 현상, 사건, 공간이 실제 생활의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고, 특정 상황을 연출한 재현조차 경계 위에 불분명하게 위치시킴으로써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텍스트가 환상성을 주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리얼리티를 창출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크게 사회적 맥락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11) 김대성, 「아직 소화되지 않은 피사체를 향해 쏘아라 - 1인칭 Shot, 리얼리티 쇼와 전장의 스펙터클」, 『작가세계』 86호, 작가세계, 2010, 331쪽.

생산하는 환상적 사실성이 지니는 함의를 탐구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장르가 리얼리티 확보를 위해 구사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때 전자가 주로 신자유주의의 자기 통치 서사나 낭만적 사랑의 환상, 공동체주의 등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환상적 사실성 위에서 혹은 서로의 공모를 통해 발휘하는 힘에 방점을 둔다면, 후자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 가상 연애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게임쇼 등 하위 포맷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성 극대화의 서사 전략을 밝힌다.

먼저 오늘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구성방식 및 이를 통해 생산된 환상적 사실성은 “자기실현과 자기표현의 개인을 지배적인 주체성의 모델로 채택해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실천하게 하는데 기여”¹²⁾하거나, 한국적 변용을 통한 ‘정서적 평등주의’의 재현¹³⁾ 혹은 ‘낭만적 사랑’의 관념 및 전근대적 가치를 답습¹⁴⁾하는 측면을 보인다. 즉, 리얼리티라는 장르적 속성과 포맷의 변용 가능성에 기대어 다층적인 담론들이 효과적으로 재현·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주의 신화의 노출은 그 한계와 실패까지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경쟁의 틈새를 간파할 계기¹⁵⁾를 마련해 주며, 또한 사실성 전략이 ‘의외의 서사’를 통해 설득력을 잃는 순간, 시청자들에게는 역으로 지배담론을 낮설게 볼 수 있는 기회¹⁶⁾를 제공하기도 한다.

12) 김수정, 앞의 논문, 2010, 38~39쪽.

13) 김수정,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 24-6호, 한국방송학회, 2010, 7~44쪽.

14) 김지영·김동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재혼 담론과 현실의 괴리 - 리얼리티 프로그램 <꽃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 29권 제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83~124쪽.

15) 김미영,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의 복합적 가치지향」, 『문화와 사회』 1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101~149쪽.

16) 최은경·김승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

한편, 오늘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언급되는 것은 형식의 가변성과 오락적 리얼리티이다. 즉, 일정한 포맷 안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대체될 수 있으며,¹⁷⁾ 제작진의 개입이나 서술 주체의 노출과 같은 현장의 느슨함은 오히려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계기¹⁸⁾가 된다. 이때 제작진의 의도적·비의도적 노출은 일반인이 부재하는 국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실제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방편¹⁹⁾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리얼리티를 훼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리얼리티를 보호하는 방식²⁰⁾은 결국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적 실제성이기보다 전달되는 상황에 대한 진실성이며, 이는 대처방법이나 반응이 현실적이라면 연출 안에서도 충분히 오락적 현실성이 충족될 수 있음을 의미²¹⁾한다. 그러나 다양한 층위의 몰입 구도를 통해 ‘리얼한 환상’을 제조한다고 할지라도 다큐적 실제와 오락적 실제가 혼재되어있는 한, 시장의 논리 및 시선의 개입은 간과할 수 없다.²²⁾

결국 하위 혹은 인접장르와의 접합을 통해 탄생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혼종성은, 일상의 공간과 삶을 프레임 속 이상적인 모습으로 치환하거나 이미 가상임을 전제한 이야기에도 리얼리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두 축의 분리가 필요하지 않음을

중성 - 연예인 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의 텍스트 및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보』제 24-3호, 한국방송학회, 2010, 175~219쪽.

- 17) 이경숙·조경진, 「오락프로그램에 차용된 리얼리티와 경쟁의 조합 - <서바이버>와 <무한도전> 비교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제 11권 제 1호, 문화방송, 2010, 89~119쪽.
- 18) 김미라,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제 67호, 한국방송학회, 2008, 143~168쪽.
- 19) 이현율,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실제성 구현 연구 - <1박 2일>에 나타난 제작진 노출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제 29-6호, 한국방송학회, 2015, 241~272쪽.
- 20) 최성민, 「대중 매체 텍스트의 리얼리티 문제 연구 -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제 1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125~146쪽.
- 21) 옥민혜·박동숙, 「‘오락적 현실감’ 작동 방식과 상호텍스트성 - 리얼버라이어티 쇼 수용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제 1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73~109쪽.
- 22) 주현식, 「현실을 연행하기 - 리얼리티 TV 『정글의 법칙』의 리얼리티 효과」, 『대중서사연구』제 19권 제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539~579쪽.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때 현실을 환상의 공간으로 포섭해 ‘그 이상의 현실’로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환상성의 주조는 결국 리얼리티의 극대화로 연결된다. 즉, 프로그램이 단지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라기보다, 제시하는 장면이 바로 ‘현실’이라는 환상을 구축하기 위해 현상을 가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가 구현하는 환상적 사실성의 의미를 서사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혼합 장르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현실과 환상의 중첩된 담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 사실성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vN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정선편> 시즌1(이하 삼시세끼)(2014.10.17.~2014.12.26.)의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 “도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때우기를 낫설고 한적한 시골에서 가장 어렵게 해 보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두 남자 연예인(이서진·옥택연)이 강원도 산골에서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일종의 관찰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촬영장을 방문하는 게스트에 따라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 회에서 공통적으로 ‘농촌(농사)’과 ‘밥(요리)’, ‘전원생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에피소드 별 주요내용 또한 식사준비, 게스트 등장, 수수밭 미션 수행, 시장 방문 등으로 한정적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소재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서사구성과 개성 있는 등장인물 및 의인화된 동물들의 조합으로 인기를 얻으며 총 11회 평균 8.9%,²³⁾ 최고 9.7%라는 시청률을 기록했다.²⁴⁾ 지금까지 삼시세끼는 스핀오프인 어촌편을 포함, 총 여섯 개의 시즌이 제작되었으며, 이들 중

해당 시리즈의 가장 원형적인 포맷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선편 시즌1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²⁵⁾

<삼시세끼>를 분석하기 위해 영화나 TV 등 대중영상매체 분석에 적절한 채트만(Chatman, 1978)²⁶⁾의 서사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서사분석이란 특정한 서사를 담고 있는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에 접근해, 내재한 재현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장 효과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해석 틀이다.

채트만에 따르면 서사(narrative)란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story)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는 서술방식인 담화(discourse)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끌어나가고 실천하는 주체인 ‘인물’과 인물의 행위가 펼쳐지고 사건이 전개되는 구체적 혹은 상징적인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인 ‘배경’ 및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계열체(paradigm)분석과 인물들 간의 소통과 갈등, 대화를 통해 전개되는 사건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통합체(syntagma) 분석으로 나뉘게 된다.

‘담화’란 이야기 안의 인물, 사건, 배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가와 관련 있는 이야기 서술방식으로 ‘언어 표현방식’과 ‘영상 표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 표현방식은 서술자 유형(혹은 내레이션), 서술자 모드, 서술자 위계구조, 시점 등이 포함되고, 영상 표현방

23) 닐슨 코리아 제공 URL: <http://www.nielsen.com/kr/ko.html>

24) 고승희·정진영 (2014, 12, 10). 2014 예능 연말결산...최고와 최악은?. <헤럴드경제>.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0000030&md=20141210092845_BL

25) <삼시세끼 정선편> 시즌1은 총 11화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인공인 옥택연이 출연하지 않은 7화와 이전 에피소드들을 편집한 감독판인 11화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회차의 방영일 및 게스트는 다음과 같다. 1회(2014년 10월 17일 / 윤여정·최화정), 2회(10월 24일 / 신구·백일섭), 3회(10월 31일 / 김광규), 4회(11월 7일 / 김광규·김지호), 5회(11월 14일 / 류승수), 6회(11월 21일 / 고아라), 8회(12월 5일 / 손호준·최지우, 이순재·김영철), 9회(12월 12일 / 김광규·이승기), 10회(12월 19일 / 김광규·이승기).

26)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1978,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식은 미장센, 장면분석, 다양한 카메라 기법, 조명 등과 음향, 음악, 편집 분석 등이 포함된다.²⁷⁾

이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체 분석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특성과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통합체 분석에서는 복합적인 사건의 연결체인 이야기구조를 분석한다. <삼시세끼>의 특성상 기승전결이나 갈등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매회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전체 에피소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적인 시퀀스나 사건, 인물들이 수행하는 미션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구성, 인터뷰, 자막, 시점을 중심으로 담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서사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혼종적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환상적 사실성의 정치적 함의 및 확장된 논의를 진행한다.

IV. 분석결과

1. 이야기 분석

1)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들과 그들 간의 관계

(1) 중심 캐릭터로서 농부형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는 배우 이서진과 아이돌 옥택연을 농촌체험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있다. 기획 의도에 따라 이들은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며 농촌생활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은 극적 연출이 가미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인물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사적 즐거움 이상으로 행위의 사실성 및 장면의 진

27) 김훈순, 「텔레비전 서사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제 59호, 한국방송학회, 2004, 167~197쪽.

실성을 담지하게 된다.

이서진은 해외 유학과 연예인으로 전형적인 엘리트이자 도시인으로 묘사된다. ‘요리를 좋아하지 않고, 정성보다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선호하며, 평소에는 서양식 음식을 즐겨먹는’ 인물로 촬영 내내 농촌생활에 불만을 터트리지만, 동시에 주변인들을 섬세하게 챙기는 등 의외의 따뜻함이 엿보이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의 보조자이자 의형제로 설정된 옥택연 역시 극 초반에는 해외 유학과 연예인으로 완벽한 아이돌의 모습이 부각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순진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의바른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간다. 그리고 농촌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화려한 연예인’에서 ‘농부(혹은 노예²⁸⁾) 형제’로 거듭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물들이다. 시청자들 역시 연기가 아닌 일상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길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소비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최대 강점이자 맹점은 리얼리티와 동시에 구성된 리얼리티를 제시한다는 점이며, 이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기제 중 하나가 바로 등장인물의 캐릭터 부여이다.

<삼시세끼>는 ‘해외파 엘리트 연예인’인 두 사람이 ‘농부 형제’로 적응해가는 과정을 에피소드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이들에게 특정 캐릭터를 부여해 스토리 전반에서 이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출연자들의 일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이들 ‘캐릭터’가 전원생활의 가치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성 강조를 위한 의도적 전략이기도 하다. 이처럼 실제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포장하는 전략은 <삼시세끼>의 궁극적인 취지를 포함, 행위와 발언의 사실성 및 설득력을 높

28) 두 사람을 지칭하는 ‘노예’라는 호칭은 일차적으로 특정 미션과 규칙으로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고 있는 제작진과 출연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어느새 농촌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별명이기도 하다.

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2) 리얼리티의 공간에 등장한 동료 연예인

<삼시세끼>에는 매 회 다양한 연령대의 게스트들이 등장한다. 대부분의 게스트들은 주인공인 두 사람과 친분이 있거나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인물들이다.²⁹⁾ 주목할 점은, 이들 역시 ‘농부 형제’로 설정된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인물과 브라운관 캐릭터 사이를 오가며 사실성을 강화하는 독특한 캐릭터를 창출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는 ‘할배’로 이미지화되는 신구, 백일섭, 이순재와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의 등장인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우선 ‘할배’로 불리는 이들은 연기선배이자 인생선배로 등장하고, 두 주인공이 ‘선생님’으로 깎듯하게 모시며 다소 어려워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두 사람을 자식처럼 대하고 격려하며 아껴준다. 이들 세 사람은 이서진과 함께 <삼시세끼> 제작진의 전작인 <꽃보다 할배>에 출연한 바 있으며, 당시 구축한 각자의 개성적인 ‘할배 캐릭터’와 짐꾼이었던 이서진과의 관계를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재연하고 있다. 한편, <삼시세끼> 게스트의 대부분은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두 주인공과 혈연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다. 아버지·어머니부터 형제 캐릭터까지 극 중에서 ‘가족’을 이뤘던 이들로, 출연진들은 촬영 당시의 일화를 자주 언급하며 극중 역할인 ‘아들’, ‘어머니’, ‘누나’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했듯 <삼시세끼>는 ‘민낯의 공간’이다. 즉, 극화된 캐릭터가

29) <삼시세끼>는 KBS 드라마 <참 좋은 시절>(2014.02.22.~2014.08.10.)에서 이복형제로 출연한 이서진과 옥택연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때 1화와 10화의 게스트인 윤여정과 최화정은 극중 어머니, 3회, 9회, 10회의 김광규는 작은 아버지, 4회와 5회의 류승수·김지호는 형제, 8회의 김영철은 아버지로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회와 8회의 신구·백일섭·이순재는 이서진과 예능 프로그램(tvN의 <꽃보다 할배>)을 촬영한 바 있으며, 10회의 이승기 역시 이서진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닌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공간으로, 장르적 특성에 의해 프로그램의 사실성은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실성은 재연의 결과물에서 획득되기보다 재연의 과정에서 획득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그 과정의 주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삼시세끼>는 두 주인공과 동료 연예인들 등 실제인물들이 생활하는 프로그램 속 공간은 현실세계로, 함께 출연한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은 허구세계로 설정함으로써 <삼시세끼>안의 행위의 사실성과 관계의 진정성은 강화된다. 동시에 같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세계를 공유함으로써 출연진들이 자연인으로 포장되어 사실성을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사실성 구성과 일상적 인물들

<삼시세끼>에는 메인 게스트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 제작진, 동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주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내를 방문할 때 만나는 시장의 상인, 슈퍼마켓의 점원, 철물점 주인, 거리의 행인 등이며, 늘 우리의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이웃인 평범한 사람들이다.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촬영 중의 우연한 노출 이외에도 수수베기와 월동준비에 일정 노동력을 제공하고, 극의 과정에서도 출연진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제작자-등장인물의 도식화된 관계를 허물고 있다. 더불어 전원생활의 핵심 구성원으로 동물들 역시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다. 제작진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염소나 닭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자막을 통해 이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 동물들을 의인화한다. 주인공들 또한 동물들을 위해 축사를 지어주고 지속적으로 교감하는 등 이들을 소통의 주체로서 간주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의 적극적 참여는 일차적으로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해당 장면에 대해 신뢰하게 하

며, 연출된 부분 역시 현실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제작진의 자연스러운 개입은 전달되는 장면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며, 이처럼 ‘무대’와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통한 의도적인 통제의 훼손은 역설적으로 사실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동물들은 전통적인 농촌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삼시세끼>의 무대가 단순히 촬영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임을 강조하고, 성장을 통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사실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서사적 요소들의 전략적 배치는 <삼시세끼>의 환상적 사실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2) 통합체 분석: 이야기구조 분석

<삼시세끼>는 매회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타 예능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출연진들에게 복잡한 미션이나 게임이 주어지지 않으며, 등장인물들은 ‘강원도 정선의 시골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작진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규칙인 끼니와 월동 준비, 수수 베기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각 회 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회 게스트가 바뀌지만 그들의 등장은 예고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정적인 분위기에서 큰 사건이나 갈등 없이 평면적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기승전결’이 생략된 단순한 서사구조는 일상성과 내용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삼시세끼>는 일상생활과 유사한 구조의 일상성을 추구함으로써 출연진들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흡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과업 수행 및 ‘삼시세끼’의 강조는 전반적인 서사에 자연스러움과 평범함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구성된 장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서사의 내용 또한 ‘과정의 사실성’을 구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삼시세끼>의 서사는 출연진들의 극히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전원생활의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일상적 행위들이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 기상 및 취침, 끼니

준비, 시장보기, 동물 돌보기, 텃밭 가꾸기, 수수 베기 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구성은 사건과 행위의 사실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삼시세끼>의 서사구조는 극적인 전개 대신, 일상생활의 재현을 채택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구성된 세트장과 계획된 연출에 사실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이는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의도와 맞물리면서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적 공간으로서 강원도 정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2. 담화 분석

1) 사실적 시·공간의 구성

<삼시세끼>는 강원도 정선의 산골마을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전회를 관통하는 시간적 배경은 ‘계절’을 축으로 변화해 가는 순환적 흐름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 서사를 이끄는 핵심축인 농사 짓기부터 계절에 따라 집을 수리하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행위, 동식물의 성장 및 자연 경관의 변화 등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은 철저히 자연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 이처럼 성장과 변화, 순리를 강조하는 시간적 구성은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그 현장감을 생산하며, 더불어 프레임 속 변화가 시청자들의 시간과 동일하다는 사실에서도 장면의 리얼리티는 한층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구성은 자칫 현실과 분리된 낯선 공간으로만 남을 수 있었던 촬영지를 일상의 공간으로 포섭하는데 기여한다.

프로그램의 주 촬영지이자 출연진들이 거주하는 집은 강원도 정선 읍내에서도 비교적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있다. 아름다운 절벽과 강으로 둘러싸인 거주지는 그 자체로도 촬영지가 도시와 단절된 이상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프로그램은 출연진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읍내방문 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와의 단절성은 극대화된다.

주인공인 두 사람에게도 집은 매우 낯선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도시 문명의 혜택이 배제된 공간에는 신식 난방시설이나 주방 대신 온돌과 아궁이가 있으며, 화장실 또한 외부에 위치해있다. 아날로그 감성의 공간 구조와 배치는 흡사 과거를 그대로 재현한 듯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처럼 과거 회귀적인 공간은 이를 직접 체험하는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청자들에게도 낯선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외부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공간이기에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 마을을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분리된 이상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촬영지와 시청자들 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장소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주요 기제가 바로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부여와 연출-생활 공간의 경계 허물기다. 시대에 따라 방식은 변화했지만 기본적으로 끼니를 준비하는 것은 일상적이며 평범한, 생존을 위한 행위이다. 즉, ‘끼니 준비’는 생활의 공간이라면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외에도 특별한 미션대신 ‘일상의 흐름’에 따라 활동하는 출연진들의 모습은 그들의 촬영지 역시 결국엔 삶의 공간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연출 공간의 설정은 배경과 출연진들의 행위에 진실성을 부여한다. 타 예능 프로그램이 생활과 연출공간의 철저한 분리와 관찰을 통해 리얼리티를 확보했다면, <삼시세끼>에서 두 공간의 자연스러운 중첩이 오히려 극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삼시세끼>의 프레임에는 제작진의 모습과 출연진들의 대화, 촬영 과정 등이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러한 연출-생활공간의 경계 허물기는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배치된 촬영지를 생활과 연출이 공존하는 실재하는 구체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종합하면, 계절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삼시세끼>의 시간적 구성은 프로그램의 사실성과 더불어 공간의 낭만성을 부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강원도 정선’을 ‘실현 가능한 이상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때 공간에서 수행되는 출연진들의 일상적 행위와 제작진들의 자연스러운 개입 역시 촬영지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강원도 정선’은 계획적으로 구성된 촬영지에서 현실 속에 실재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치환된다.

2) 제작진의 자막 사용

여타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와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막이 <삼시세끼>에서는 제작진의 의도를 직접 전달하고 편집된 장면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적, 감상적, 해석적 자막 등 세 가지 유형의 자막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설명적 자막’은 제작진이 부여하는 미션, 등장인물의 발언 요약, 요리 레시피, 농사지식 등 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적 자막은 일차적으로 정보와 지식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작진의 선택적 강조와 의도적 배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공된 사실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감상적 자막’에서는 강원도 정선 옥순봉의 풍경과 촬영지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예찬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자막 또한 제 3자인 제작진의 감상이 혼재되어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의도와 제작진의 시선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막 유형이 바로 ‘해석적 자막’이다. 이는 상황에 대한 단순 요약이나 감상이 아닌 전적으로 제작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출연진들 간 관계 묘사나 식사 준비와 같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주인공들이 꼬리곰탕을 만들고 저녁을 먹는 2화에서는 이서진

이 자신의 미국 유학시절을 회상하는 인터뷰 및 BGM과 함께, 상황의 낭만성과 추억을 강조하는 자막³⁰⁾이 제시된다. 이외에도 김지호와 김광규가 게스트로 방문해 올드팝 카세트테이프를 틀어두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4화³¹⁾나, 이순재·김영철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올드팝을 듣는 8화³²⁾의 장면에서도 제 3자의 시각이 개입된 자막이 사용된다.

각각의 개별적 장면은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하는 일관된 해석을 부여받으며, 설명과 해석이 혼재된 자막의 내용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차적 의미 역시 객관적 사실로 습득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선 자막의 세 유형은 제작진의 시각 개입 및 의도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해석적 자막의 경우, 그 내용에서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과 ‘불편한 삶’의 낭만성, 일상적 행위의 가치라는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설득력 강화라는 자막의 주요 기능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텍스트가 지향하는 ‘환상적 사실성’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하면, <삼시세끼>에서 활용한 자막은 기능과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결국이들 자막 모두 선별된 일부의 현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연도 정선은 낭만적 삶과 이상적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실현 가능한 이상향

-
- 30) “...오랜 시간을 얼우고 달래야 하는 불편함으로 솔과 아궁이가 사라지매 가정에서 멀어지고 만 요리...오늘 이곳에 다시 피어나다. ... 속부터 뭉근하게 올라오는 뜨끈함으로 마음까지 적셔주는 우리 민족의 얼. 깎두기 하나에 추억과 밥알 하나에 사랑과 아름다운 기억을 불러봅니다. 고기 하나에 무엇인지 그리워...내 이름자를 씹습니다. 그렇게 들이키다 보니 어느새 말 한 마디조차 아스라이 멀어져...”
- 31) “...이곳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장작불의 온기와 카세트테이프 음색뿐. 항상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늘 무언가를 ‘하느라’ 시간을 쓴다. 그 중 시간을 오토이 쓰는 건 얼마 만큼일까. 지금 그는 무언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느끼는 중이다. 그에게 주어진 잠시 동안의 ‘그만의 시간’을...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잡음이 있고, 조금 더 정겹다.”
- 32) “겨울날 어느 가족의 풍경... 시골의 밤은 도시보다 깊어서 시간은 더디게 간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한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현실의 고단함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척이나 따뜻하다.”

으로 재구성된다.

3) 등장인물들의 인터뷰

<삼시세끼>에서 자막과 더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등장인물들의 인터뷰이다. 인터뷰는 촬영장을 배경으로 제작진과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전후 장면과도 단절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인터뷰 삽입이며, 주인공들의 행위와 다른 출연진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모습이 같은 프레임에 담기기도 하는 바, 오히려 자연스럽게 상황을 보충설명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직접 발언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그들의 행위와 장면에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

인터뷰의 내용은 강원도 정선의 풍경 및 농촌 경험에 대한 감상과 소회, 상대인물에 대한 평가, 촬영의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 등이 주를 이루며, 이 과정에서 자막이 병행되어 인물들의 발언을 선택적으로 정리·강조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뷰는 상황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구술이라는 점에서 발언자체의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배경이 되는 공간 및 그들 경험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궁극적으로 ‘전원생활의 가치’라는 프로그램의 의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동시에 시청자들은 인터뷰가 등장인물들의 발언이라는, ‘표면적 사실’에만 주목함으로써 해당 인터뷰의 상황적 맥락-구성된 배경과 질문, 인터뷰를 삽입하는 제작진의 의도 등-은 자연스럽게 생략되며, 이러한 상황적 요인의 배제는 개인의 주관적 발언을 객관적 사실로 인식하게 한다. 결국 <삼시세끼>의 인터뷰는 자막과 더불어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공간 및 현실에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 제작진의 시점

리얼리티 프로그램 <삼시세끼>는 전적으로 제작진-제 3자의 관찰자적

시점으로 전개된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모든 등장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집과 텃밭을 둘러보는 출연진들의 1인칭 행위 역시 제작진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제시된다.

시점은 텍스트를 지배하는 권력의 위치를 뜻한다. 즉, 어떤 시점에서 영상물이 진행되는가에 따라 관찰당하는 대상은 객체로서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는 주체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며, 이로 인해 시청자 역시 주체-제작진이 해석한 객체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된다.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관찰’은 권력의 위치를 드러내는 도구이자 장면의 사실성을 확보하는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삼시세끼>는 연출-생활공간의 분리가 아닌, 출연진 모두에게 공개된 관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출연진들은 관찰 카메라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며, 제작진 역시 설치된 카메라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같은 ‘공개적 관찰’은 앞서 언급한 연출-생활공간 간 경계의 모호함과 더불어 보다 자연스러운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서사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제공되는 프레임이 의도적으로 선별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관찰’이라는 장치 자체가 주는 효과-장면의 진실성-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해독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V. 결론

혼종적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생산하는 ‘환상적 사실성’은 어떠한 서사전략을 통해 구현되며,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더욱 정교해지는 전략 속에서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오늘날, 이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혼종성과 텍스트의 사실성 추구라는 두 축에 기반해, 농촌 버라이어티 <삼시세끼 정선편>의 서사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텍스트가 단지 현실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제

작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구성해 이를 ‘사실’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일종의 ‘환상’을 구축한다는 맥락에서 ‘환상적 사실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분석 결과, <삼시세끼>는 텍스트의 환상적 사실성과 프로그램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외부의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다. 계절의 순환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농작물과 자연경관의 변화, 동식물의 성장 및 이에 따른 과업 수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현장감은 극대화되며, 프로그램이 프레임 밖 현실과 동일한 시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사실성은 강조된다. 공간의 경우, 강원도 정선이라는 촬영지와 구식의 거주지는 등장인물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낯설 수 있지만, 장소의 일상성을 부각하며 연출과 생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은 ‘실현 가능한 전원’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이러한 시공간에 배치된 출연진들은 실제 인물과 연출된 허구적 인물 사이를 오가며 자연인으로 자리매김 되고, 기승전결이 부재한, 즉, 과정의 사실성이 강조된 일상적 행위들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제들은 제작진의 자막 및 인터뷰 삽입을 통해 그 설득력이 강화되는 바,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분의 현실’은 프로그램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체의 사실’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사실성을 강화하는 전략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농촌을 배경으로 촬영된 <삼시세끼>는 자연주의 방송을 표방하며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과거의 것’에 대한 재가치화를 시도한다. 즉,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등장인물들은 ‘유사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며 개인주의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전통적 가치를 전달하고, 느낌과 부족함의 미학이 강조되는 강원도 정선은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성 강화 전략 아래 배치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향이라는 ‘환상성’이 구축되는 것이다. 물론, <삼시세끼>가 전달하는 환상성의 가치를 무조건적

으로 폼하할 순 없을 것이다. 아날로그적 감수성과 낭만성, 이에서 비롯된 과거의 향수와 위로 안에는 분명한 서사적 즐거움이 존재하며, 이미 여러 분석 및 언론 기사들이 밝혔듯,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수성’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된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강원도 정선의 공간이 결국 의도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현실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전원생활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우리는 만들어진 이상향을 지속적으로 소비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공간 속에 은폐된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삼시세끼>의 등장인물들은 일상적 과업은 수행하지만 그 안에 ‘생업’은 누락되어있고, 프레임 안에 담기는 모든 노동과 인물들은 ‘낭만성’이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환상적 사실성을 부여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구성은 ‘바로 그 장면’에 존재하는 문제와 모순을 낭만적 현실로 가장할 수 있는 바, 두 지점 사이의 괴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시세끼>의 촬영지가 실제 민박마을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의미로 상징적이다.³³⁾ 환상적 사실성이 강조된 이상향이 실제론 장기간 대여와 지속적 관리로 유지된 무대라는 현실을 일부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큐멘터리적 사실성은 여전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몫은 아니며, 한편으론 이들만의 ‘사실성’은 현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실성 전략을 밝히는 작업은 이제는 굳이 가늠하려 하지 않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숨겨진 ‘현실’에 대한 질문이자, 그 과정에서 이미 ‘리얼리티’가 된 환상들에 대한 탐색인 바, 이를 지속할 때 비로소 리얼리티 끝에 실재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33) 하경현 (2014.12.21). 가을시즌 끝낸 ‘삼시세끼’ 제작진에게 묻는 ‘아주 시시콜콜한 궁금중’ 10가지. <스포츠 경향>. URL: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412211716413&sec_id=540201

참고문헌

- 김대성, 「아직 소화되지 않은 피사체를 향해 쏘아라 - 1인칭 Shot, 리얼리티 쇼와 전장의 스펙터클」, 『작가세계』 86호, 작가세계, 2010, 329~343쪽.
- 김미라,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제 67호, 한국방송학회, 2008, 143~168쪽.
- 김미영,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의 복합적 가치지향」, 『문화와 사회』 1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101~149쪽.
- 김수정,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 24-6호, 한국방송학회, 2010, 7~44쪽.
- _____,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서구조와 문화정치학」, 『방송문화연구』 제 23권 제 2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1, 37~72쪽.
- 김예란·박주연, 「TV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제작자 심층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방송학보』 제 20-3호, 한국방송학회, 2006, 7~48쪽.
- 김지영·김동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재혼 담론과 현실의 괴리 - 리얼리티 프로그램 <꽃 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 29권 제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83~124쪽.
- 김훈순, 「텔레비전 서사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 제 59호, 한국방송학회, 2004, 167~197쪽.
- 류용재·박진우,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에 침투한 신자유주의 경쟁 담론 - 프로그램의 채택과 제작 과정에 대한 생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 24권 제 1호, KBS 방송문화 연구소, 2012, 139~165쪽.
- 박지훈·류경화,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 개도국의 가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 5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9, 142~184쪽.
- 옥민혜·박동숙, 「‘오락적 현실감’ 작동 방식과 상호텍스트성 - 리얼버라이어티 쇼 수용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 1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73~109쪽.
-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reality)의 재구성 -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제 23권 제 2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1, 7~36쪽.
- 이경숙·조경진, 「오락프로그램에 차용된 리얼리티와 경쟁의 조합 - <서바이버>와 <무한도전> 비교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 11권 제 1호, 문

- 화방송, 2010, 89~119쪽.
- 이현율,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실제성 구현 연구 - <1박 2일>에 나타난 제작진 노출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제 29-6호, 한국방송학회, 2015, 241~272쪽.
- 이희은,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감시 사회의 정경」, 『한국방송학회』 제 28-2호, 한국방송학회, 2014, 211~248쪽.
- 주현식, 「현실을 여행하기 - 리얼리티 TV 『정글의 법칙』의 리얼리티 효과」, 『대중서사연구』 제 19권 제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539~579쪽.
- 차찬영·박주연, 「TV 오락 프로그램의 포맷 구성의 변화 - 2000년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12권 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2, 526~564쪽.
- 최성민, 「대중 매체 텍스트의 리얼리티 문제 연구 -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 1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125~146쪽.
- 최은경·김승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중성 - 연예인 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의 텍스트 및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회』 제 24-3 호, 한국방송학회, 2010, 175~219쪽.
- 홍석경,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 - 현실과 허구의 혼합을 통한 텔레비전 장르형성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 16권 제 1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04, 257~280쪽.
-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1978,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 Couldry, N. & Littler, J., “Work, power and performance: Analysing the ‘reality’ game of the Apprentice”, *Cultural Sociology* 5:2, 2011, pp.263~279.
- Hill, A., *Reality TV: Audiences and popular factual television*, New York, NY: Routledge, 2005.
- Restyling factual TV: Audiences and news, documentary, and reality genres*, New York, NY: Routledge, 2007.
- Holmes, S. & Jermyn, D., *Understanding reality television* (Eds.), New York, NY: Routledge, 2004.
- Kilborn, R., “How real can you get?: Recent developments in ‘reality’ televis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9:4, 1994, pp.421~440.
- McMurria, J., “Desperate citizens and good samaritans: Neoliberalism and makeover reality TV”, *Television & New Media* 9:4, 2008, pp.305~332.

**Narrative strategies and illusion of reality in reality
entertainment program :**
tvN's Three meals a day – Jeongseon series

Kim, Hwan-Hee · Kim, Hoon-Soon

These days, reality program uses a variety of narrative strategies to produce a lot more sophisticated ‘reality’, in the context of situational aspects, including genre hybridity and in pursuit of text reality. In this regard, ‘reality’ refers to a kind of ‘illusion’, in that it is artificially established through various strategies with and within the text, more than just displaying the objective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concept of ‘illusion of reality’, and conducted a narrative analysis of tvN’s *Three meals a day – Jeongseon series*, in order to identify the mechanism that is used to actualize ‘illusion of reality’ within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ree meals a day* tried various strategies throughout the program, in order to reinforce the text reality and the purpose of producers. Every event occurred over the primitive time flow, as the circle of the seasons, emphasized the sense of reality. Also, the casts’ behaviors and breaking up the boundary between real - fictional space, visualizes ‘realistic rural areas’ that can be regarded as somewhat exotic. Furthermore, ‘Jeongseon, Gangwon- do’ is eventually transferred to the feasible utopia by characters who act both real person and a fictional person, forming pseudo-family, and by strengthening scene reality such as carrying on daily routine behaviors which reinforced the reality of procedure. However, since ‘illusion of reality’ created by reality program does certainly embrace problems camouflaged with romantic reality, more than just showing narrative enjoyment, thus, continuing to pose such questions enables us to confront ‘something’ that lies behind ‘reality.’

Keywords : reality program, genre hybridity, illusion of reality, narrative, naturalism

투고일 : 2017. 02. 06. / 심사일 : 2017. 02. 27. / 심사완료일 : 2017. 03. 07.

